

장성 황룡강 10리 꽃길서 '뮤직 페스티벌' 즐긴다

24~26일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열려
 25일 '뮤직 페스티벌' 10CM·'소란'·김수영 등 무대
 북 캠프니·펫 문화 존·꽃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
 상생 감동석·특산품 추천 등 지역경제 상생 주목



장성 황룡강 전경. 좌측으로 조성 중인 황룡정원 잔디광장이 보인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길동무 꽃길축제의 주무대이다. <장성군 제공>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무대에 오를 가수 정서주(왼쪽부터)·10CM·김수영.

봄의 절정을 맞은 장성 황룡강 10리 꽃길이 '음악'의 옷을 입는다. 이달 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뮤직 페스티벌'로 새로운 변신에 나선 예정이다. 지난 가을꽃축제 때 호평받은 캠프니·펫 문화 존·꽃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은 상생 감동석·특산품 추천 등 지역경제 상생 주목

연주에 이어 '모정의 세월'을 부른 한세일 등 축하 가수 무대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개막식의 꽃은 '미스트롯 3'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수 정서주다.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황민우·민호 형제의 무대도 관심을 끈다.

◇25일 뮤직 페스티벌 라인업 '10CM', '소란' 확정=이어지는 25일 주말 공연은 길동무 꽃길축제의 분무대라 할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기다린다. 어느 공연에서든 '부동의 헤드라이너' (주연 참여가수)를 맡는 '10CM'와 밴드 '소란'이 올해 뮤직 페스티벌의 주인공이다. 총 8팀이 봄날에 어울리는 달달하고 그루브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아메리카노', '봄이 좋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대중적인 발라드부터 인디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10CM' 권정열의 개성 넘치는 목소리는 누구도 모방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이유다. 지금도 공연, OST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발표한 '그라데이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곡으로 자리매김했다.

보컬 고영배, 베이스 서민호, 드럼 편유일, 기타 이태욱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인 '소란'은 밴드 이들과 달리 소란스럽기보다는 밝고 로맨틱한 음악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싱어게인 3'에 출연한 싱어송라이터 김수영도 기대를 모은다. 한 번 들으면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이를 받쳐주는 잔잔한 기타 연주가 봄밤에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찾은 인파.

◇북 캠프니, 펫 문화 존, 꽃 체험 등 풍성=지난해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캠핑 + 피크닉' 콘셉트는 올해 '북 캠프니'으로 다시 찾아온다. 장성군은 문화대교 인근 버드나무 정원에 에어백, 빈백 등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아동 인기도서 위주로 구성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복잡한 축제장에서 잠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싶다면 추천한다.

반려동물과 축제를 즐기는 '펫 문화 존'도 이목을 끈다. 펫 공연과 반려동물 행동 상담, 반려동물에

티켓(펫티켓) 교육, 펫 케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황룡강 봄꽃을 주제로 한 체험도 풍성하다. 손톱에 꽃을 그리는 '네일 아트', 친환경 책갈피 만들기, 돌에 꽃 그림을 그리는 '스톤 아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황룡강 건너편 힐링정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켈리 체험, 세계문화놀이도 기다린다.

상류 방문 황미르 플레이랜드에는 어린 방문객들이 좋아할 만한 '호빗의 집', '에어바운스', '피규어

포토 존', 놀이터 등이 있다. 매직쇼, 체험버스, 로봇 마술공연과 포토타임도 운영한다. 탁 트인 강변 풍경을 만끽하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걷기길도 조성되어 있다. 발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황룡강 테마파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 '주목'=올해 길동무 꽃길축제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 상생'이다. 장성군은 축제 주무대 바로 앞, 뮤지션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좌석을 '상생 감동석'으로 지정해 특별한 이들에게 제공한다. 이달 25일까지 장성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선착순으로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종이 밴드를 팔목에 걸어준다.

영수증을 활용한 이벤트는 또 있다. 축제기간 장성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 뒤 영수증에 연락처를 적고 행사장 종합안내소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 장성특산품을 보내준다. 이 이벤트에는 장성군민을 제외한 외부 관광객만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상생 감동석'과 장성특산품 추천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더불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축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봄축제 하면 황룡강 뮤직 페스티벌이 떠오를 수 있도록, 세계적인 뮤지션을 섭외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확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음악과 봄꽃, 북 캠프니이 있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5월호

2024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광주, 도시정원을 꿈꾸다

- 골목 숲, 아시아예술정원, 민간정원
- 정원도시 순천에 길을 묻다
- 5월 개관, 애남 솔라시도 산이정원
- 도시 브랜드가 된 미국의 도시공원들

백운원림 갯벌탐방 하멜마을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②

이제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공연 화제 1000회 맞은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상설공연'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③ 부챗살 따라 펼쳐진 부채의 역사, 전주 부채박물관

에ditorial

평생의 역작 『문신』 펴낸 소설가 **윤홍길**

"살아 숨쉬는 우리 민족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 ① "미술 사랑의 풍요로움 나누고 싶어요" 광주미술관회

유배의 그늘에서 문화가 꽃피다 **남도 유배지를 찾아서**

황년의 예술가와 친구들 ⑥ 과묵한 판화가, 강국진 청년 댄 한강번서 행위예술 동참

호남의 누정 ⑧-광주 풍암정 의병장 형제 잃은 울분 삼키며 '무등'의 품에 안긴 정자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한 방 펀치 마동석표 '범죄도시'... 한국판 람보·록키시리즈로